



‘실패’부터 일어나라

도심 포교 제대로 하려면... 지역사회 연대 강화 시급

신도시와 뉴타운 등 도심 포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사람들이 지역사회 의제 발굴과 현안 해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은 지역 포교 거점 마련을 위해 전법단을 출범시켰다. 전법단은 병원, 경찰, 군, 대학생, 광주전남, 성남 전법단 등 지역별·영역별로 조직돼 불교 확산을 위해 활동 중이다.

그러나 전법단은 범당을 벗어났을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전법 및 포교에 대한 인식이 전통적 활동에 한정돼 도심 및 지역 포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당초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것. 병원 전법단은 관련시설 및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광주전남전법단도 어린이 청소년 법회, 교도소, 군 법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병원, 학교, 경찰서에 집중된 전

법 활동은 불특정 다수의 도시민들과는 소통에 한계를 갖는다. 신도시·뉴타운 및 도심 특성에 맞는 새로운 포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도시와 뉴타운은 기존 정착민들에게는 고향이 사라진 충격이다. 이주민들에게는 지역에 가족과 친지가 전혀 없는 낯선 땅일 뿐이다. 이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명상 프로그램 등이 불교만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제시되고 있다.

은평구에 위치한 진관사(주지 계호)는 전통 사찰이다. 은평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면서 진관사를 찾던 기존 주민들 대신 이주민의 범죄 참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진관사는 이런 현상에 주목하고 특화 프로그램 마련에 고심 중이다.

또한 신도시 및 뉴타운은 소수의 기존 거주민과 다수의 이주민이 공존한다. 상반된 계층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지역 현안이 발생하면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사람들이 불교적 해안을 제시하고 지역 의제를 선도할 때의 포교 효과는 병원, 군 부대, 교도소에서 펼쳐는 전법단 활동을 뛰어 넘는다. 2003년 해인사는 가야산에 골프장 건립이 추진되자 주민들과 함께 반대활동에 나서면서 공사를 중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해인사의 이런 활동은 전국민에게 불교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2010년 발간한 ‘조계종 포교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불교의 외연 확장을 위해 사회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내 각종 위원회 참여와 시민사회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연계시스템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관련기사 3편 [박기범 · 이상언 기자](#)



초코파이 좋아요

도선사 108산사순례기도회(회주 혜자)가 매 순례마다 인근 군장병과 전경들에게 보시한 초코파이 200만개를 넘어섰다. 주석회사 오리온 제과는 3월 10일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를 찾은 순례기도회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순례기도회는 이날도 봉은사 인근 군장병에게 초코파이 600박스를 전달했다. 군대에서는 여전하 인기라는 ‘오리온 초코파이’를 보시받은 군인들이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순례회는 봉은사 순례로 순례절반을 넘어섰다.

5대결사 전 총무원장부터 양심고백을

명진 스님, 해제 후 봉은사에서 법문



남(사진)이 3월 5일 봉은사를 다시 찾았다. 이날 법문은 일정에 없었으나 신도들의 요청에 의해 시작됐다.

명진 스님은 “한국 개신교가 부흥을 시작한 것은 1907년 평양대부흥회 이후로, 개신교도들이 자신

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참회하면서 기독교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며 “한국불교의 미래도 참회와 고백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5대결사가 잘되려면 총무원장과 종회의원이 자신들을 흠부터 고백해야 할 것”이라며 “자승 총무원장부터 MB하수인 노릇을 어떻게 했는지 밝혀야 한국불교가 새로 태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

불기2555년 봉축표어 연등회는 7일 동국대서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이 선정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

장 자승)는 “지난 2월 실시한 공모를 통해 접수된 276건(132명 응모)의 봉축표어를 심사한 결과 경기도 광명시 황태문 불자가 응모한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을 선정했다”고 3월 8일 발표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행사는 불교계의 정부 지원금 거부로 매년 서

울시청 앞에서 열리던 봉축장엄물점등법회는 생략될 예정이다.

연등축제는 연등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5월 7일 동국대와 종로에서 어울림마당과 제등행렬을, 8일 조계사오일길(우정국로)에서 불교문화마당과 공인마당을 연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친MB인사 리스트 갖고 있다

김영국 운영위원 “자성 없으면 공개”



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명박 캠프에 참여했던 380명 스님은 당선 후 감사장까지 받았다”며 “당사자들이 스스로 반성·고백하지 않으면 리스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이 380명 스님을

선거캠프 고문 등으로 위촉할 때, 한 명 한 명 만나 승낙을 받아냈다. 고문 등에 위촉된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스님이 있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국 운영위원은 “조계종 기획실장이 ‘정부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발언에, 겉으로는 민주문화수호운동을 외치고 물질적이익을 한다고 직감해 리스트 존재를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말로만 종교평화?

종교평화 연수, 신청자 부족으로 ‘폐장’

종교평화에 대한 스님들의 이해 증진을 위한 연수 교육이 수강자 미달로 폐강돼, 종교평화 문제에 정작 스님들은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종교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2011 연수교육’에 2박 3일 과정의 ‘종교 평화와 불교의 역할’ 교육을 마련했다.

그러나 9명의 스님만이 수강을 신청해 폐강이 결정됐다. 특히, 총무원이 전국 교구본사 사회국장 회

의를 ‘종교 평화와 불교의 역할’ 강의를 열리는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무 담당인 사회국장 스님들마저 종교평화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연수 교육을 기획했던 사회부는 보완방안을 논의 중이다. 사회부는 내년 교육기간을 1박 2일로 축소하거나 교육원의 전체 교육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박기범 기자



827호 CONTENTS

▶ 3 기획·도심포교 활성화 중단 차원 로드맵 시급



▶ 6 티베트 민중봉기 52주년 다람살라 기념식 거행



▶ 9 인터뷰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미얀마 양곤 신도시 나인파야에 위치한 5만평 대지 코리아 기술 종합 대학교



2010년 12월 12일 신축 공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학교 관리자는 미얀마 종교성 장관이 자동으로 선임되고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에서 운영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후진국 빈곤 청소년들에게 살아가는 삶 자체를 바꾸어 주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중생의 지팡이가 되시고자 하시는 참다운 불자, 숨은 봉사자를 찾습니다.

초빙 안내 총장, 명예 교수 겸 운영이사

자 격 : 부처님의 제자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
1년에 1주일이상 학교에 머물며 학교 건축 및 운영 전반에 직접 참여할 모든 종단 및 남녀 불문하고 스님 및 재가자를 모시고자 하며, 총장 선임자는 교육계 정년 퇴임자 중 헌신 봉사할 불자를 찾습니다.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외교법인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이 사장 목탁 헤은 합장
대표 전화 02)733-5665, 011-229-6061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국민은행 023-501-04-147581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시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입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렇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맘 흘리는 불제자, 증생교화, 인간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임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불제자를 모시고 싶습니다. 재물 보지도 중요함입니다. 가진 것 없어도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 또한 값진 보시이며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적 봉사입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니다! 무엇을 망설일니까?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거나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제자들이 됩시다.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외교법인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회 장 목탁 헤은
부회장 금당 법승
포교원장 불도 천장 교육원장 현담 승랑 감찰원장 일해 공심
전화 02)730-5670